

# 레드카펫은 없지만

영화 '네발 달린 바우' 스틸컷.

## 강진 할매들 “오늘은 내가 배우랑께”

강진아트홀 29~30일 '삼남길 마을영화제'

‘할머니들이 만드는 시네마 천국.’ 강진 도암면 향촌 마을 아흔살 할매니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

‘떠돌이 감독’으로 불리는 신지승 감독이 지난 16일부터 향촌 마을 할머니들과 강진중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네발 달린 바우’를 제작했다. 신 감독은 마을 사람들을 스텝과 배우로 참여시켜 ‘마을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는 영화 감독으로 지난 10여 년간 전국을 돌며 60여 편의 영화를 촬영했다.

이 영화는 15살에 향촌마을로 시집 온 율해 아흔살의 할머니와 율해 15살이 된 남자 중학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향촌 마을 할머니들과 읍내 어린 중학생들의 이야기를 접목한 작품이다. 영화는 평평 눈이 내리는 날을 배경으로 시작된다. 15살 중학생들은 삼남길을 답사하다가 추위를 피해 마을 노인당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 앉은 할머니들로부터 살아온 옛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온정을 느낀다. 또 할머니들은 어린 나이에 시집과 치매에 걸린 시부모를 모셨던 이야기 등 험겨웠던 젊은 날을 떠올린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은 중학생도 자신의 현실을 다시 떠올린다. 부모

향촌마을 ‘네발 달린 바우’ 개막작 선정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한 삶의 터전 담아 신지승 감독, 경상·충청도 촬영작도 선별

와 떨어져 사는 그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담긴 앞 갯벌에서 캐온 바지락을 내다 팔아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영화의 제목인 ‘네발 달린 바우’는 ‘큰물이 진 마을 앞 강을 거슬러 오르면 네 발 달린 돌이 멈춰 있기 때문에 향촌 마을이 한양이 되지 못했다’라는 도암 향촌의 설화에서 따왔다.

신 감독의 영화는 기존 TV 프로그램과 영화들과는 달리 지역 주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에 불과했던 주민들이 생산자로 나선 것이다.

‘네발 달린 바우’ 제작과 함께 영화 이야기를 듣고, 따뜻한 온정을 느낀다. 또 할머니들은 어린 나이에 시집과 치매에 걸린 시부모를 모셨던 이야기 등 험겨웠던 젊은 날을 떠올린다.

강진아트홀은 29~30일 강진아트홀과 강진 도암면 향촌마을회관, 정자 명발당에서 ‘삼남길마을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전라·경상·충청

도를 이어주던 ‘삼남길’의 가치를 회복하고,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마을영화’를 매개로 서로 교류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인 ‘네발 달린 바우’는 30일 오후 2시 강진아트홀에서 상영된다.

앞서 29일에는 신 감독이 촬영한 타 지역의 ‘마을영화’가 잇따라 상영된다.

경북 영주시 무섬마을을 배경으로 촬영한 ‘선비가 사는 마을’(오전 11시 향촌마을회관)은 오백년된 한옥 전통 마을이 체험마을로 변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남성 중심의 유교적 문화에 대한 할머니들의 불만을 감독의 독특한 시선으로 포착했다.

‘충남 공주시 임동리마을 영화 제작 과정과 다큐멘터리’(오후 4시 향촌마을회관)는 음악을 들려주면 비닐하우스의 고추가 더 잘 자란다는 사실을 알

고 비닐하우스에 틀어박혀 지내는 한 소년의 이야기다.

서울 서촌일대 예술가들의 삶을 다룬 마을영화 ‘서촌일기’(오후 1시 명발당)는 노래를 하고 싶지만 아무도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 주지 않음에 괴로워하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다룬다.

‘살아가는 기적’(오후 3시 명발당)은 한국 전쟁 등을 겪으면서 굴곡 많은 삶을 살아온 강원도 인제의 산촌마을인 ‘갯강마을’ 주민들의 일상을 들려주고, ‘우포늪에는 공룡들이 살고 있다’(오후 5시 명발당)는 경남 장성 주매리 마을을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으로 공룡발자국을 보기 위해 우포늪을 찾은 가족이 지갑을 잃어버리고 나서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강진아트홀 운영진은 “마을영화는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소소한 이야기거리가 있는 삶의 터전인 마을을, 영화 제작의 무대로 등장시켜 주민들을 하나로 묶고 축제의 장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며 “삼남길마을영화제는 해남 임하도, 장흥 송산마을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061-430-3972.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 민화를 잇는 민화

은암미술관, 1월 8일까지 ‘은고지신’전

민화는 정통회화의 조류를 모방해 생활공간의 장식 또는 민속적인 관습에 따라 제작된 실용화를 말한다. 조선 후기 서민층에서 유행했는데 대부분 정식 그림 교육을 받지 못한 무명화가나 떠돌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인지 민화의 형식은 한없이 자유분방하다. 민중들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된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라는 민화에 대한 평가도 이때 문이다.

우리 선조의 그림을 겨울삼아 새로운 창작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은 광주전통민화협회(회장 성혜숙)와 함께 내년 1월8일까지 ‘은고지신’전을 개최한다.

광주전통민화협회는 민화 발전과 함께 민화가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 민화가 주는 해학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참여 작가는 성혜숙·이광자·고재희·장서희·오영란·강귀옥·서은선·전미란·홍현자·서은지·박승자·오아란씨 등이다. 문의 062-231-5299. /김정민기자 kki@



성혜숙 작 '명호도'

## 새 광주예총 회관 무엇이 담겼나

예술광주 가을·겨울호 나와

광주예총(회장 최규철)이 펴내는 예술광주 가을·겨울호가 나왔다.

특집 기사로 옛 광주 서구청 자리에 등지를 뜬 광주예총 회관을 소개한 ‘새 광주예총 회관 무엇이 담겼나’를 실었다.

기획 기사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와 광주비엔날레 2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광주급남로에서 1박2일간 진행됐던 100인아트페스티벌 행사의 이모저모를 담았다. 또 사진 작가 강경숙의 바이칼 호수 지



상천이 눈길을 끌며 제25회 광주음악회, 소리꾼 민성용, 사진그룹 ‘포토 링’ 등 한 해동안 지역에서 열렸던 행사와 두각을 나타낸 인물 관련 글도 실었다.

독립큐레이터 탁혜성씨의 ‘무등산같은 문화수도 광주를 꿈꾸며’와 인문학논단, 윤해옥·이규용·이기원·이혜경씨 등 회원들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528-9207. /김미은기자 mekim@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 1월 2일부터...음악 등 8개 부문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진)이 지역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예술창작 활동 및 발표 기회를 지원하는 2015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했다.

2015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지원 규모는 총 6억 5000만원으로 신진 및 기성예술인에 대한 소액다건형으로 지원되며 8개 장르(음악, 미술, 국악, 문학, 사진, 연극, 무용, 다원)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이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술인은 최대 200만원, 단체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www.gjcf.or.kr) 우측 하단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접속하거나 지원시스템 주소(www.ncas.or.kr)로 접속해 서식을 내려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015년 1월 2일부터 19일까지 가능하다.

광주문화재단은 1월 7일 오후 2시 재단 4층 다목적실에서 2015년 문화예술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062-670-7445. /오광록기자 kroh@

다가오는 2015년 새해에도, 고객님의 한분 한분을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 모시는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 메뉴 **떡국**개시 정성을 가득담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0가지 외원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너로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맞춤형 출장도시락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2014년 12월 15일 ~ 2015년 3월 15일 **제주도여행 폭탄세일**  
나는 제주여행을 (2박3일) ₩109,000원에 갈다~

선박(씨스타크루즈) 08:50 목포항출발 ₩109,000원 ~ 항공(아시아나) 15:40 광주공항출발 ₩189,000원 ~

1일째	선박 08:00 목포항집결 13:30 제주항도착직원미팅 항공 14:30 광주공항집결 16:20 제주공항도착직원미팅	수목원테마파크-아이스뮤지엄-트릭아트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서커스월드or코끼리쇼(현지직물) HOTEL : 일반호텔(4~6인실)	중식 : 자유식 석식 : 호텔식
2일째	조식후-아침이 이쁜솔잎바다~외돌개 올레6,7코스트래킹 석부적태마농원-감귤따기체험-중문포구~별내천전망대, 천연난대림지대 중식후-카멜리아 힐-겨울의꽃 동백동산	동굴리안 마상쇼(현지직물)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3일째	조식후-민공예품전시장-조랑말체험 제주성읍민속전마을체험-중식-광치기해안-제주의오름을 한눈에볼수있는 드라이브수상산간도로 예코랜드-기차타고곳자왓(자연원시림)숲지대관광 - 농,수산물직매장 - 해녀촌	모형사상 : 신석일항공예, 한지재용, 일한내의일장포, 속시비, 여행자모형 물포형사상 : 용선(현지직물), 기사, 가이도형 1인 ₩10,000원 * 광주출발-목포-광주도착(20명이상신청필수) 1인 ₩20,000원	조식 : 호텔식 중식 : 현지식 석식 : 호텔식

※ 참가일정 은 현지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상품은수중택지입니다. ※ 2인실 : 1박당 30,000원 추가 ※ 산외회 별도문의

※ 문의처 | 해외, 국내, 섬투어 전문여행사 **황제관광여행사** 광주광역시 북구 효산로 5 ☎ 062)267-8580 ★ 담당자 | 문병구 H.P 010-3999-3226 FAX 062-267-8581

2015년 겨울방학특선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축제**

기간 | 2015년 1월 10일(토) ~ 2월 1일(일)까지 무박2일, 1박2일  
장소 | 강원도 화천군 산천어 축제장 회원님들모십니다

무박2일  
출발지 : 광주역 23:00 집결, 23:30 출발  
포함사항 : 전용버스, 입장료, 주차비, 조식, 중식(상동권), 여행자보험  
회비 : 주중 ₩89,000원 주말(토, 일) ₩99,000원

1박2일  
1일째 ▶ 광주역 08:00 출발 - 남이섬 - 강원도 화천군 숙박  
2일째 ▶ 조식후 - 산천어 축제장 - 15:00 출발 - 광주  
포함사항 : 전용버스, 전일정 입장료, 숙박(모텔 4인실), 주차비, 식사(중식2회, 석식회, 조식1회), 여행자 보험  
회비 : 주중 ₩169,000원 주말(토, 일) ₩189,000원  
\* 20명이상출발가능 \*\* 예약담당문의 H.P : 010-3999-3226

황제 산천어 매일 첫매주 화요일 07:30, 광주역 08:00, 문예회관 08:10 출발합니다.  
홍보의사 : 문병구 H.P 010-3999-3226